"똑똑, 전통주 배달왔습니다"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SnackNews
#MZ세대전통주사랑
#박소영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최근 MZ세대의 전통주 사랑이 심상치 않다.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들이 다양한 종류와 맛을 가진 전통주에 눈길을 돌리게 되면서 전통주 시장이 크게 확장했다. 소주·맥주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를 앞세워 주류 이커머스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2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통주 판매 금액은 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2%가 증가할 만큼 전통주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성장 중이다.

이중 지난 2018년에 설립한 '술담화'가 눈에 띈다. 술담화는 넷플릭스, 애플뮤직과 같은 '구독 경제'를 전통주와 연계한 국내 최초 전통주 구독 플랫폼으로 매달 집 앞으로 전국각지의 전통주가 배달된다.

술담화의 전통주 정기 배송 서비스인 '담화박스'는 한달에 한 번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합', '약청주', '증류주' 등 3가지 상품 2~4병을 받아 볼 수 있다. 담화박스에는 해당 전통주에 대한 설명과 추천 안주 등을 담은 설명서가 함께 동봉돼 있어 전통주에 대한 지식을 함께 얻을 수 있다. 도수부터 재료, 양조장 소개는 물론 쓴맛, 단맛 등이 나타난 향미 그래프까지 쓰여 있다. 술담화 정기 배송 서비스는 약 1만명이 월 구독을 하고 있으며 30대가 가장 많다.

전통주 이커머스 시장 활기의 이유는 젊은 층의 주목도 있지만 현행법상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도 한몫했다.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면 전통주를 제외한 일반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통주는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민속주'와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인근 농산물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로 나뉜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쓰거나 전통 방식으로 제조했더라도 일반 기업이 생산하는 주류 대부분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높아진 전통주 인기에 국내 편의점업계에서도 하나둘 전통주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GS25는 지난 1일부터 이른바 '대한민국 막걸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류인수 한국가양주연구소 소장과 협업해 최고급 양조기술로 빚은 한정판 프리미엄 막걸리를 출시했다.

산불 예방은 미래 세대에 대한 선물이다

기고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5월경 아까시 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끝난다"라는 속설이 있다. 5월은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 수분 함유량이 많아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기에 산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겠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설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산불 관련 키워드를 보면 "연중 발생, 동시다발, 대형산불" 등으로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일반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기가 건조한 봄철과 가을철에 주로 발생한다.

봄철 산불은 주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하는 3~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봄철 행락철 및 가정의 달인 5월에 많은 이들이 야외 활동에 나서면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부주의한 소각 등의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 기후 여건 등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동해안 위주로 자주 발생하던 대형 산불 추세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 중 하나로 2022년 5월 31일에 발생한 경남 밀양시의 대형 산불이 단번에 축구장 1000개 면적(744ha)의 임야와 건축물 6동 등 약 7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해당 산불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히 건조해진 날씨와 높아진 기온으로 인한 '돌발 가뭄'에 주목하고 있다.

돌발 가뭄은 단순히 강수량 부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일반 가뭄과는 달리 다양한 기상이변에 의해 급격하게 발생하는 가뭄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돌발 가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돌발 가뭄의 피해는 여름철에도 산불이 발생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건조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이 같은 현상과 함께 봄철 및 여름철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겨울철에는 적은 강수량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점차 연중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화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기온이 20세기 초보다 1.4도씨 상승함에 따라 202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연평균 8369ha로 2010년대 857ha보다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산불 발생 일수도 2000년대 136일, 2010년대 142일, 2020년대 16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던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5월 15일로 마감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78건의 산불로 4006ha의 산림 피해가 주로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하였고, 그 원인도 입산자 실화 32%, 영농 부산물 소각 24%, 담뱃불 실화 6% 등이 원인이었지만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산불 예방에 대한 긴장의 끈도 절대 놓아서는 안된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에 많은 시간과 재정 투입 및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불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까닭에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남도에서는 산불을 원인별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ICT 플랫폼 등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첨단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중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는 예방이,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연중, 동시다발,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산불에 도민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감시원이라는 마음과 지금의 자연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권리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의무임을 생각하며,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산림 지역 주변에서 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독자투고

'눈물의 여왕'을 통해 본 가족의 의미

최근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고 막을 내린 드라마가 하나 있다. 모 민영방송의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바로 그것이다. '세기의 결혼, 세기의 전쟁'이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퀸즈 그룹 재벌 3세,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과 용두리 이장 아들,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이야기가 그 줄거리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자 뻔한 스토리로 치부될 수 있는 소재임에도 '백현우와 홍해인의 결혼과 이혼, 사랑이야기'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평소에 드라마를 즐겨 보지 않는 필자도 가끔 챙겨 봤을 정도니 말 다했다. 25%에 육박하는 시청률이 무색하지 않게 외신들도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사랑에 빠진 이유를 재발견했다', '마지막 순간 가장 순수한 행복에 도달한 가장 로맨틱한 K드라마'라는 극찬도 이어졌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백홍앓이'다. 그렇다. '눈물의 여왕'에서 보듯이 '가족'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쉽게 간과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단어에 묘한 매력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가. 영어로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의 첫 글자를 합성한 것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다. 그 설이 맞든 안 맞든 '가족'은 참 아름다운 말임에 틀림이 없다.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말 '식구(食口)'는 또 어떤가.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마침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고 보면 5월 달 만큼 기념일이 많은 달도 없을 것 같다.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 스승의 날에 이어 석가탄신일까지 있다. 계절의 여왕인 5월, 가슴시린 눈물의 여왕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쁨의 여왕'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은 어떤가.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